

건국대학교병원보

기획특집 | 나는 달린다
느티나무 초대석 | 대한치매학회 이사장 취임, 한설희 교수
최신의학 | 심장 검사도 척척! <Dual Source CT 도입>



건국대학교병원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피아노와 가야금의 조화

피아노 연주자 스티브 더스터 씨와 가야금 연주자 정민진 씨의 협연이 있던 피아노 정원...

피아노의 거침없고 씩씩한 선율과 가야금의 고운 소리가 마치 잔물결에 반사되는 아침 햇빛을 보는 듯 했다. 연주에 몰입한 두 연주자와 그들에게 매료된 청중들이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두 연주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음악적 재능을 공유하며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더스터 씨는 작년 부터 병원에서 10여 차례 연주봉사를 해왔다. 현재 용산외국인학교에서 음악과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자신의 스튜디오(www.sanddust.com)를 운영하며 미국·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서 음악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에 평안을 전달하기 위해 음악을 시작한 그는 병원에서 연주봉사를 하면 다양한 청중이 있어 즐겁다고 한다. “미국의 병원에서도 연주를 하곤 하는데 끝난 후 악수를 청해오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같은 마음은 느낄 수 있습니다.”

더스터 씨와 합연한 정민진 씨는 중앙대학교 국악대학과 동 대학원 한국음악과(가야금전공)를 졸업하고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다. 그녀는 환자의 아픈 곳을 직접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 연주를 통해서 환자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

각기 다름을 주장하고 투쟁하는 일이 많아진 우리 사회 속에서 조화의 중심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두 연주자의 아름다운 마음이 서로 다른 음악의 조화를 끌어 냈다. ♪

글·김동현 명예기자
사진·김기태 명예기자

